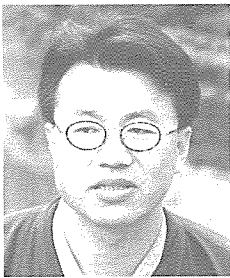


참 과학기술로 녹색의 21세기를 열자

이제 환경문제는 바로 발등의 불이다.

우리 인류는 우리가 마치 지구의 마지막 세대인 것처럼 함부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21세기는 상생(相生)과 공승(共勝)의 시대이다. 또 21세기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시대로 귀본(歸本)의 시대이다. 첨단과 구닥다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만 하겠다.



張元

〈녹색연합 사무총장/대전대 교수〉

‘농가에서는 닭이 알을 낳았지만 병아리가 생기지 않고, 돼지는 덜 된 새끼만 낳는데 그나마도 며칠만에 죽어버린다. 농부들은 시름시름 앓아 누웠는데 의사들은 무슨 병인지 몰라 치료를 하지 못한다. 냇가에는 물고기가 죽어 배를 보이고 꽃에는 벌이 날아들지 않으며 숲에서는 더 이상 새소리를 들을 수 없다. 저주받은 이 땅엔 봄이 와도 침묵의 봄일 따름이다.’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의 서두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봄도

예사롭지 않았다. 따뜻한 바람 불어 봄인가 했더니 칼바람 쐬뽀 불어 핀 꽃들 서둘러 졌고, 봄비 축축히 대지를 적셔 이제는 진짜 봄이려니 했는데 알 수 없이 계속되는 장마. 기어코 봄이 오기는 왔지만 예년과 다르게 늦게 오고 또 어렵게 왔다. 이게 다 환경오염과 그로 말미암은 생태계 파괴 탓이다.

환경문제는 발등의 불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상수원은 이미 3급수로 전락하고, 지하수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도시는 열섬효과로 점점 더워지고 있고,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몇 백배나 검출되고, 그래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진행되어 그 귀중한 갯벌은 사라지고, 동강에는 대형댐이 만들어져 귀중한 생태계가 송두리째 수장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게다가 정부는 그린벨트까지 전국적으로 대폭 완화하고, 각 지방자

치단체는 앞다투어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을 자행하고, 그 외중에 우리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라는 국제적 압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제 환경문제는 바로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우리가 마치 지구의 마지막 세대인 것처럼 함부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 그 자체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눈 앞에 닥친 새로운 천년의 첫 100년, 즉 21세기는 우리 인류 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물종의 역사에 있어서도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절대절명의 환경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할 녹색의 대안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인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희망을 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여태껏의 과학기술은 녹색의 대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작금의 심각한 환경위기를 유발시킨 일인자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눈 앞에 다가온 새로운 시대, 21세기의 첨단과학기술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는 곧 에너지문제이므로 연료 전지의 개발이나 인공태양의 연구 등에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지구환경에 부담을 덜 주거나 덜 하게 할 수 있는 기술, 소위 청정기술의 개발에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불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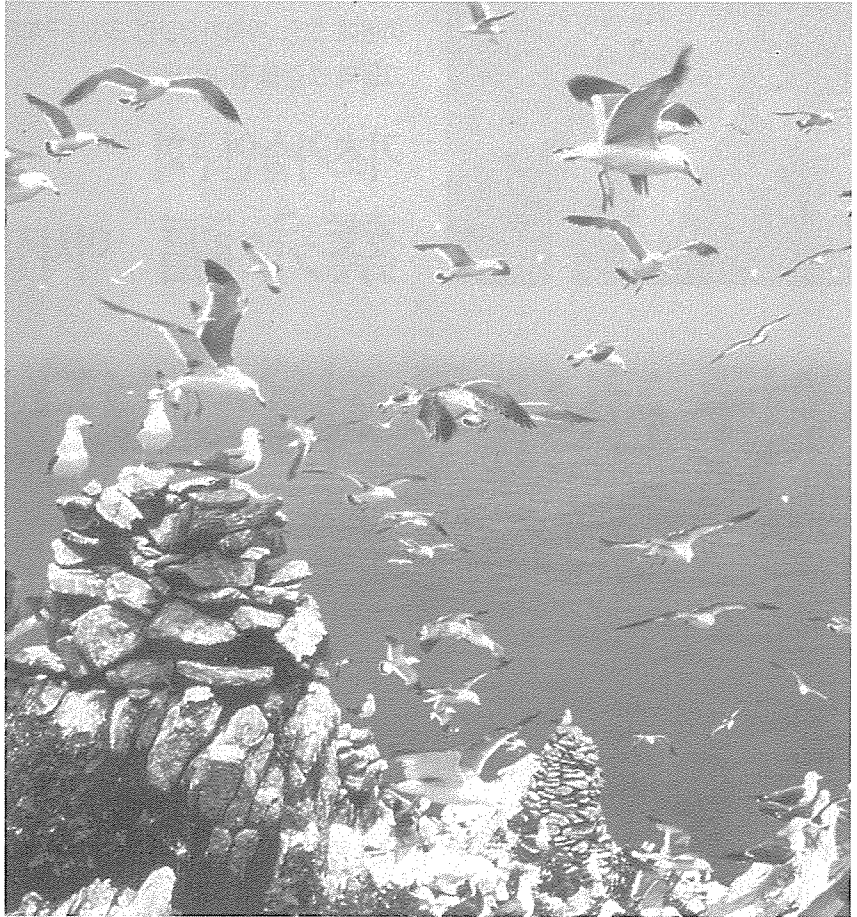
었던 유전자 복제 연구는 로마 교황청의 연구중단 촉구 성명, 클린턴 정부의 연구지원 금지, 유럽의회의 생명윤리강령 제정 등으로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최근 들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에 큰 우려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에 치명적인 과학기술들도 소위 첨단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개발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로서는 다 파악할 수조차 없는, 유전자 조작으로 말미암은 그 폐해는 어찌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난 숫자에 이르는 핵발전소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또 어찌할 것인가. 정녕 첨단과학기술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우리 인류를 21세기에도 '지속가능'하게 해 줄 것인가.

창조적 맴돌이로 돌아

21세기에도 여전히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이어서 맹목적으로 과학기술 그 자체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인류에 적용시키면 되는 것인가. 소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으면 모두 비과학의 영역이고 정신세계의 영역인가. 오래된 과학기술은 구닥다리로 더 이상 21세기에는 소용되지 않는 것인가.

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과학기술이 그를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이 가치중립적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인류에 적용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



작용과 부산물을 책임지지 못하는 과학기술은 참 과학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소위 비과학의 영역이나 정신세계의 영역에도 그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과학기술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성급함과 복잡함에서 느긋함과 단순함으로 삶의 가치가 이동하고 있으며 기계적이고 자동화된 문명이 자연적이고 원래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21세기는 상생(相生)과 공승(共勝)의 시대이다. 또한 21세기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시대요, 귀본(歸本)의 시대이다. 모든 것은 돌고 돌게 되어 있다. 돌되 그냥 돌아가지

않고 깨달아 새로 돌아가는 것, 창조적 맴돌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시반본이다. 과거가 그야말로 과거지사가 아니라 명백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때 그것은 곧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래된 미래'라고 일컫기도 한다.

21세기 과학기술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창출과 오래된 미래를 찾는 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위 첨단과 구닥다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만 인류는 21세기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과학기술로 녹색의 21세기를 열자. ㉞